

KREI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보도자료

■ 제공일: 2026년 5월 21일

■ 제공자: 박형호 부연구위원

전화: 061-820-2121

■ 배포부서: KREI 성과홍보팀

전화: 061-820-2127

■ 매수: 2매

■ 사진: 2매(기관, 보고서)

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‘관광 넘어 관계인구’로.. 농촌 지속가능성 높이는 생활인구 전략 제시

KREI, ‘농촌 지역 생활인구 증가의 사회·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’ 연구보고서 발간
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(이하 KREI)은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『농촌 지역 생활인구 증가의 사회·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』을 발간했다.
- 이번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,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성화 전략으로 ‘생활인구’ 개념에 주목했다.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소비·교류·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.
- 연구진은 행정·통신·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통계 분석과 함께 주민 설문조사, 사례조사 등을 통해 생활인구가 농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·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. 특히 6개 면 지역 주민 7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외지인 유입에 대한 주민 인식과 수용성도 함께 살펴봤다.
- 분석 결과, 생활인구가 증가할수록 지역 내 카드 소비액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단순 방문객 수보다 ‘재방문율’과 ‘평균 체류시간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. 이는 짧게 다녀가는 관광보다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체류형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.
- 연구진은 앞으로의 생활인구 정책이 단순 방문객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‘관계형 정책’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

언하며,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 시설 조성이 아닌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운영조직과 중간지원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- 박형호 부연구위원은 “농촌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을 확대하는 데 있다” 며 “생활인구를 지역의 소비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파트너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” 고 밝혔다.